

# 對 美 電子購買使節團 活動 報告

李 恒 燮

• 本會 國際部長

## 1. 개 요

한국은 지난 20년간 경제성장에 있어서 세계를 리드해왔다. 이에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실로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 또한 매우 밝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를 포함한 몇몇 주요 산업에서 경쟁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위험 부담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다른 국가들에게 미치는 반대 영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일부 주요시장에 대한 한국상품의 침투는 특정 한국상품의 판매를 방해하는 보호주의자들의 역습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시장이 한국상품에 대하여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상품 수출의 45% 이상을 점하고 연간 70~8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다 주는 미국시장의 중요성에 비추어 뒤늦게나마 적

극적인 주종시장 관리에 나섰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이제 세계경제에 있어서 능동적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한국의 위치를 세계에 알리는 공정무역의 상대자로 나선 것이다. 이에 한국전자산업이 그 전모를 밝히고 정책적인 배려나 공정무역 당사자로서 의지표현을 하고 돌아왔다는 데서 이번 전자 구매사절단의 미국 방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제보다 값이 비싸고, 품질도 떨어지고, 납품기일도 일본보다 더 긴데, 미국 제품을 구태여 왜 사는가?」라는 단순한 불평도 있었음을 이해하더라도 수입다변화가 왜 필요하고 한국상품의 해외주종시장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 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 73억 달러중 35.6%에 해당하는 2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한국전자 산업이 특별구매 활동을 통하여 3억달러를 썼다해도 수치면에서는 미국인이 표현하듯이 「항아리 속의 물 한방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간 수천억 달러의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의 외형적자 내습이 전통적인 미국의 자유무역주의 정책의 붕괴를 촉발시켜 왔고 이와 같은 미국의 자유무역주의 정책의 붕괴로 인한 역반응이 전세계 도처로부터 한국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전자구매 사절단의 특별구매 조치는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에 이르렀다. 평소의 미국인들의 불평을 요약해 보자.

「한국은 미국과 상당 규모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과는 상당 규모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이 막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한국이 원자재나 식량의 수입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절한 무역흑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

나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제품을 사들이기 위하여 적자를 감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불평이나 비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수입자유화 조치에 적극호응, 이번 행사를 통하여 정확한 현재의 위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깊은 것이다.

## 2. 구매사절단 활동 보고

국내 21개 전자관련회사들의 구매목표는 약 3억 달러에 이르며 실제구매한 금액은 2억 5,000여만 달러에 달해 목표대비 85%의 구매실적을 올렸다.

로스앤젤리스,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를 거치면서 단장 그룹 5명과 단원 21개사 대표들은 공식행사와 구매활동을 병행 추진하였으며 가급적 많은 인사들과 대화를 갖는 데 주목적을 두었다.

가장 가까운 미국인들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으나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답답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임을 알게되었고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비추어 무차별 판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이에 구매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미국의 대중언론 매체나 업계의 대한국 인식을 올바르게 갖도록 노력한 구매사절단의 전력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다.

15일간의 4개도시 방문 결과를 다음에 요약해 본다.

### 對美 전자구매사절단 활동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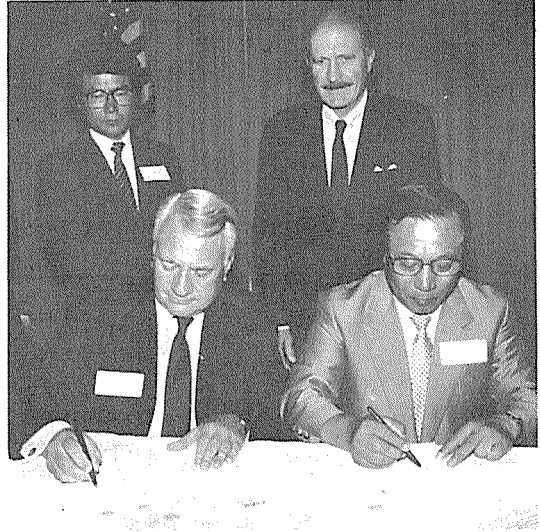
1. 기간 : 1987. 6. 27~1987. 7. 11(15일간)

#### 2. 목적

- 가. 한·미 무역불균형 시정노력의 일환
- 나. 수입선 다변화 및 대일 수입선 전환
- 다. 한·미 전자업체의 협력방안 모색
- 라. 한국전자공업의 현황 소개

#### 3. 참가업체 및 단원구성

- 가. 단 장 : 최근선 사장(금성사)
- 나. 부단장 : 박수환 부사장(금성사)
- 다. 조정관 : 서사현 가전제품과장(상공부)
- 라. 간 사 : 유복규 진흥이사(본회)



이항섭 국제부장(본회)

#### 마. 참가업체 (21개사, 無順)

금성사, 대우전자, 럭키소재, 금성계전, 대우통신, 삼보컴퓨터, 금성반도체, 대덕전자, 삼성반도체통신, 금성전기, 동양정밀, 삼성전기, 삼성전관, 삼성전자, 삼성코닝, 코실, 한독컴퓨터, 한일써킷, 효성중공업, 코오롱상사, 이화전기

## 4. 활동결과

### 가. 리셉션

1) LA지역 : 1987. 6. 29(월) 18:00-20:00

-장소 : Biltmore Hotel Crystal Ball Room

-주요 VIP참석 현황

-구매사절단 단원 전원 참석

- LA시 의회 의장
- 캘리포니아 주지사 대리(Mr. Sullivan)
- LA Times주간
- Monsanto회사 부사장
- AT&T생산 담당이사
- EMAC회장등 75명

2) 시카고지역 : 1987. 7. 1(수) 18:30-20:30

-장소 : 하이얏트 리젠시 Ball Room

-주요 VIP참석 현황

- 일리노이스 주지사 대리
- 시카고 트리뷴 경제부장
- 타임지 시카고 사무장
- 시카고시 무역개발 담당국장 등 총 78명

- 3) 뉴욕지역 : 1987. 7. 7(화) 18:00 - 20:00  
 - 장소 : 그랜드 하이얏트 호텔 Ball Room E.  
 - 주요 VIP참석 현황
- 뉴욕시 국제무역개발 국장(S. J. Fierst)
  - 뉴욕시 국제무역개발 부국장(Harry Lewis)
  - ABC TV방송 외신 담당기자
  - Electronic News외신담당 주간
  - TWICE 잡지사 주간
  - 월스트리트 저널 - 외신주간 (Peter Gumbel) 등 80여명

- 4) 워싱턴지역 : 1987. 7. 9(목) 18:30 - 20:30  
 - 장소 : 포토백 레스토랑 대연회장  
 - 주요 VIP참석 현황
- 상무성 :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외 6명
  - 에너지성 : 국제정책개발국장(Harold Jaffe) 외 3명
  - ITC : 사무국장(Kenneir R. Mason) 외 3명
  - USTR : 전자공업 담당관(Eric G. Nelson) 외 2명
  - 상원의원 : 내바다주 (James H. Bilbray) 오레곤주(Ron Wyden) 뉴저지주 (James J. Florio) 다코다주 (Thomas A. Daschle) 펜실바니아주 (Richard T. Schulze) 총 115명

나. 기자회견

- 1) LA지역 : 1987. 6. 29(월) 10:00 - 11:00  
 - 장소 : Biltmore Hotel, Tiffany Ball Room  
 - 참석언론사  
 Los Angeles Times, Electronic News, Economic World, ABC News, KCBS TV News, KTA-KBS, Koper News, South Coast Business  
 (결 과)
- 가) LA현지 TV채널 2, 7, 9, 10 저녁뉴스 TV에 대미구매 사절단의 구매계획, 방문목적, 양국 전자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보도.
- 나) Financial News Network (FNN TV)에 생방송 출연, 방문목적과 구매계획 등을 설명다. 개별 Media인터뷰 및 VIP예방
- 1) LA지역

- 가) Tom Bradly LA시장 사무실 예방  
 이스라엘 방문으로 부시장 Mike Gage접견(시의회의원 참석)
- 한국 전자업계의 방문목적 설명(선물교환)
  - 시의회제 8 지구 의원 : 흑인 및 기타 소수민족의 중소기업도 방문대상으로 설정해 줄 것을 요구

- 나) LA시 상공회의소장 Rey Remy 방문
- 2) 뉴욕지역 : 1987. 7. 8(수) 14:00 - 15:00  
 - 장소 : 그랜드 하이얏트 호텔 Ball Room E  
 - 참석언론사  
 Electronic Engr Times, Economic News, Fortune, Business Week, New York Times (사진기자), Electronic Buyers News
- 방문목적 설명
  - 대미 수입선 전환 노력 설명
  - LA지역 9,000만달러 구매목표 설명
  - 양국간 통상 및 경제협력 증진 촉구

- 다) Media인터뷰(Luncheon)
- LA Times, Electronic News, Business Week - 인터뷰 내용
  - 한·미 전자공업의 현황 및 반도체 업계의 동향에 대한 의견교환.
- 2) 뉴욕지역
- 가) 단독 Media 인터뷰
- ① TWICE (This Week in Consumer Electronics)
    - 이번 구매사절단 구성
    - 미국전자업계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 미국내에 더 많은 공장을 세울 계획이 있는가? 특히 중소기업 쪽에서?
  - ② The Wall Street Journal
    - 한국의 전자업계의 빠른 발전속도는 누구나 부러워하고 있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
    - 한국 올림픽 개최가 전자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 하이테크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의존하려는 분야는 어떤 것인가?
  - ③ MIS Week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한국 전자구매사절단에 대한 기사는 이미

MIS잡지에 게재한 바 있는데 좀더 구체적 인 업체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

- CTV, MWO, VCR 등에 대한 한국의 생산 능력이나 수출목표같은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

④ Journal of Commerce

-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수입전환된 품목인가?
  - 구매활동중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 라. Business Luncheon

- 1) 일 시 : 1987. 7. 10 12 : 00 - 14 : 00
- 2) 장 소 : 워싱턴 Mayflower Hotel
- 3) 참석자 : 상무성장관, EIA회장, 미상공회의소장, ADAPSO부회장, AEA부회장  
한국대사관 이현홍공사  
한국대사관 상무관  
Monsanto 부사장등 150명

- 4) EIAK/EIA 업무협약서 체결
  - 5) EIAK/ADAPSO 업무협약서 체결
5. 워싱턴 DC 방문결과

가. 미 상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방문(1987. 7. 9 09 : 00 ~ 09 : 30)

상무성 참석자	EIAK 참석자
• Mr. Mel Searles	• 최근선 단장
• Mr. Lew Kramer	• 박수환 부단장
• Mr. Robert Eckleman	• 서사현 조정관
• Mr. Susan Blackman	• 유복규 이사
	• 이항섭 부장
	• 정 상무관

(Mr. Mel Searles)

- 사절단 방문경과가 어떤가?
- 홍보자료 중 수입목록(100부), 쇼핑 리스트(100부)를 별도로 보내 달라.
- 수입목록(그린 북)중 다수 품목은 미국제품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Mr. Lew Kramer)

- 최근 수입개방정책에 대하여 사의표명.
- 32비트 컴퓨터 수입개방은 만족하나 16비트 수입제한은 철폐요구(88년 7월 이전).
- CPU 수입제한 철폐요구(88년 7월 이전)

- 국산품 의무규정 철폐요구(88년 7월 이전)
- 주변기기, HDD, HEP(High End Printer)도 수입제한 철폐요구(88년 7월 이전)
- 「Leading-edge」를 「bleeding-edge」라고 부름.  
(Mr. Robert El kleman)

• 한국컴퓨터 시장이 실제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Mr. Mel Searles)

- 통상법안이 금주내 상원에서 통과될 것이다.
- 8월 회기 이후 합동회의에 상상정될 것이다.
- 모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레이건 대통령 정책을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
- 자유, 공정무역 당사자가 되어 줄 것을 요망한다.

(Mr. Lew Kramer)

- 수입관세 인하문제에 관심이 많다.
- 통상법안 중 201조, 301조에 주목해야 될 줄 믿는다.
- 반덤핑 규제법이나 피해조사 규정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들 규정은 Non-market Economies관점에서 다룬다.
- 멕시코 자유무역지대 :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생각이나 의회는 동의하지 않는다.

- Private Right of Action : 외국상사에 대하여 개인의 손해배상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규정안이 의회에 상정중에 있다.
- 일괄 통상법안에 대한 비토 : 게파르트안이 통과된다면 비토권은 행사될 것이다.
- 우회수출 방지법 : 자세히는 모르나 한국입장에서는 주지해야 될 줄 믿는다.

나. 미 무역대표부 방문  
(1987. 7. 9 14 : 00 - 14 : 30)

사무국장 : Mr. Jim Frier son

- 솔라즈 하원의원 및 Cheney상원의원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한국실정에 대한 미국언론의 편파보도 태도를 알게 되었다.
- 한국의 상공장관계서도 미국의 상원이나 하원 의원들과 자주 통상법안에 대한 대화를 갖기를 바란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더욱 자유롭

고 공정한 통상법안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주는 행위가 될 것이다.

- 일괄 통상법안이 공정한 내용을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EIAK와 공동 보조를 맞추고 싶다. 다. AEA방문(1987. 7. 9 15 : 30 - 16 : 30)
- AEA부회장 • AEA국제부장
- AEA회원사의 3/4 정도는 종업원 250명 미만이다.
- AEA회원사 모두 한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AEA는 전세계적으로 약 20개국에 지사를 갖고 있고 미국 전역에 20여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 최근 캐나다 전자협회와 업무협정 계약을 맺었다.
- 상원은 88년 정치문제(선거)에 더욱 관심이 있고 선의의 공정무역법안 대신에 무역법안을 정치문제의 방패로 쓰려고 하고 있다.
- AEA는 EIAK가 수출조정안에 관한 「Warner provision」에 찬성해 주기를 바란다.
- '87 KES Show에 102개 회원사를 이끌고 참석한다. AEA는 U. S. Products Show에 관하여 좀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
- AEA의 국제협력위는 8월에 EIAK와의 업무협정 체결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승인되면 EIAK와 접촉하겠다.

## 6. 구매사절단 활동의 기대효과

### 가. LA언론의 반응

- 한국전자공업의 급속한 발전상은 장차 세계의 수준급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 어려운 여건에서 9,000만 달러의 구매목표는 많은 관심을 끌 것임에 틀림없다.
-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한국전자공업이 진정한 공정무역 상대자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 한국 정치현황 발전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한다.

## 7. 업계 및 행정부 관리 반응

### 가. 업계

- 한국으로 진출하고 싶으나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이번

EIAK방문으로 의문이 많이 풀렸다.

- 한국전자공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
-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더 검토하여 EIAK와 교신하고 싶다.

### 나. LA시청, 시의회

-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중소기업도 구매 대상으로 삼아 줄 것을 요구
- 사절단 파견시 반드시 시청과 시의회의와의 연락을 갖기를 희망

### 다. 뉴욕지역

#### 1) 언론반응

- 하이테크분야의 기술이전, 한국전자공업의 현황 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
- 한국 정치현황에 대한 관심을 표명
- 한국전자공업의 급속한 발전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

### 라. 시카고지역

#### 1) 주지사대표 반응

- 연방정부가 예산적자에 허덕이는 시점에서 한국전자 구매사절단을 맞이하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 표명
- 뜻깊은 방문목적에 대하여 주위 많은 관련 인사들에게 한국전자업계의 의도를 전달하겠다는 의지 표명
- 앞으로 더 많은 미국산 전자제품을 구입해 줄 것을 요망
- 앞으로의 구매사절단 파견에 있어서 주지사 사무실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협조하겠다는 의지 표명
- 시카고지역의 주정부 지도자들이 60%가 흑인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중소기업과 유대관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망

#### 2) 업계반응(시카고시 산업개발공단 이사장)

- 미국내의 동일 분야의 업계에서 사전에 한국 전자구매사절단 파견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데 대하여 유감 표명
- 앞으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인사 표명

- 시카고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리스트제공
- 구매와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한국전자업체의 노력에 대한 찬사 표명
- 한국 전자구매사절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제공 용의 표명

마. 워싱턴지역

1) 정부관리

- 구매사절단으로서 구매뿐만 아니라 대중 여론의 대한민국 인식변화 노력에 대한 경의 및 찬사 표명
- 양국 전자협회간의 협력계약 서명에 대한 칭찬
- 한국의 시장개방 노력 치하, 잔여제한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촉구(컴퓨터 등)
- 일괄 통상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한국 전자구매사절단의 간접지원행위 칭찬

2) 의 회

- 한국전자공업에 대한 인식 제고
- 한국 정치현황에 대한 관심 표명
- 정치불안으로 인한 올림픽개최에 대한 우려 표명

8. 대미 전자구매사절단 활동 결과의 문제점

가. 정책적인 면

- 한국 이미지부각 홍보활동 필요

- 업계 및 협회간의 정보교환 활성화 필요(적극 대처)

- 워싱턴지역 홍보활동 강화 필요

- 뉴욕지역 홍보활동 강화 필요

- 한국전자공업에 대한 홍보물 정기 제작필요

나. 수입선 전환을 위한 문제점

- 가격이 일본지역에 비하여 높을 뿐만 아니라 거리상의 문제로 인한 부대비용이 증가 됨.

- 가격의 Negotiation폭이 좁아 상당히 힘들다. (상대방의 사정을 잘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납기상으로 일본지역보다 1~3개월 더 소요 됨. (잔업 등의 특별조치가 힘들므로 납기 단축이 어려움)

- Sales 담당들이 한국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홍보부족) 판매의 적극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음.

- (우선 미국내 수요 충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출은 최우선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일본을 포함하여 구주 선진국의 유명 Marker가 미국에 진출한 경우도 많이 있음(가격상승의 요인이 됨)

